

우리 영화가 극장에 걸린다고요?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는 아이들이 영화 제작 경험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성취감, 사고력과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뒀다. 감독, 촬영, 무대, 조명 등의 역할을 분담해 영화제작 중인 아이들.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는 문화소외지역 및 문화소외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화제작 경험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성취감, 사고력과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2019년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소외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구로구 지역에 국한했던 관심 대상을 산간도서와 벽지의 아이들까지 넓혔다.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도시권 산간벽지 아이들을 위한 ‘초청하는 영화학교’, 구로구 지역 내에 거주하는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영화학교’를 각각 운영하며 각기 다른 환경에 있는 소외된 아이들에게 다가간다.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의 윤태균 사무국장은 “아이들을 미래의 송강호, 봉준호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영화 제

작을 경험해봄으로써 스스로 성장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힘을 키워주고 싶습니다”고 말했다.

산간벽지 아이들 위한 초청하는 영화학교

‘초청하는 영화학교’는 2박 3일간의 과정으로 첫째 날은 방송국과 영화박물관을 견학한다. 둘째 날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서 1분짜리 영화 예고편 만들기에 도전한다. 아이들은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영화 만들기를 체험하고, 현직 영화감독의 도움으로 편집된 1분짜리 영상을 완성하게 된다. 마지막인 셋째 날은 영화관 구경과 동시에 수료식을 겸한 자신들이 만든 예고편 상영회를 갖는다.

“영화는 공동의 창작물입니다. 시나리오 감독도 필요하고 촬영 녹음감독, 조연출과 배우도 필요하죠. 아이들은 그런 경험을 통해 협동

심을 배워 나갑니다”라고 윤태균 사무국장은 전했다.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는 영화학교를 다시 참가하고 싶다는 뜨거운 아이들의 반응에 2년차 심화과정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일정도 3박 4일로 하루 늘였고 3분짜리 실제 단편영화를 만드는 것으로 발전했다. 촬영용 카메라, 붐 마이크, 조명 등 실제 영화 촬영에 사용하는 장비도 제공했다. 1년차 사업이 아이들에게 희망과 자아를 찾는 과정이었다면, 2년차에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3분짜리 단편영화를 만드는 과정은 시나리오 쓰기를 포함해서 연출, 연기, 촬영, 미술, 음향, 역할 체험 등 초보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영화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진행됐다. 아이들은 심화과정을 통해 영화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었고, 공동체 의식까지 배울 수 있었다.

지구촌학교부터 탈북민 학교까지, ‘찾아가는 영화학교’

구로구 지역의 다문화가정, 지적장애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찾아가는 영화학교’는 3개월 과정의 교육을 통해 다양한 영화제작 기법을 배우고 직접 만든 영화를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기본과정을 이수한 아이들에게는 심화과정의 교육도 실시했다.


영화학교에 참여했던 지구촌학교 아이들의 경우 국적과 언어가 달라 의사소통도 쉽지 않아서 우려도 많았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아이들은 영화제작 체험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협동과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이다. 윤태균 사무국장은 “아이들이 우리나라 말과 영어, 중국어를 섞어가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 화합하며 영화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

호의적인 반응만 있진 않았다. 새터민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경우 부모들의 우려가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이 노출될 것이라 걱정과 함께 탈북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길 바랐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영화학교에 참여한 아이들의 반응이 좋았다. 그 다음 해에는 오히려 먼저 참여하고 싶다는 연락이 올 정도로 긍정적인 반향을 이끌었다.

영화를 통해 더욱 성장하는 아이들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의 영화학교 3년차 사업의 주제는 소외된 아동 청소년들이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성취감을 확보하도록 돕는 일이다. 1·2년차에는 역할을 나눠 공동의 창작물을 함께 제작하면서 사회공동체에서 ‘나’에 대해 고찰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었다면, 3년차 사업은 성취감에 주안점을 뒀다. 영화를 통해 자아를 찾고, 협력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이제는 성취감을 통해 한 단계 더 높은 꿈을 꾸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2년 서울구로어린이국제영화제는 특별섹션으로 영화학교 아이들이 만든 영화를 상영할 계획을 세웠다. 자신이 만든 영화가 영화제 행사를 통해 진짜 극장에서 상영한다는 사실에 영화학교에 참가하고 있는 아이들은 벌써부터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서울구로어린이국제영화제는 앞으로도 그동안 사회에서 소외된 아동 청소년들이 영화라는 공동의 창작물을 만들며 스스로 역할분담과 협력의 중요성을 배우도록 돕고, 서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이해하며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글 정재혁

충청남도 천안 소재의 도장초등학교 아이들이 초청하는 영화학교에 참가해 수료식을 마쳤다.

